

최근들어 단속이 강화된 탓인지 일명 ‘보따리 물건’ 거래가 주춤한 상태. 그 영향으로 두총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국내산 약재시세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타고 있기는 하나 비수기인 여름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 실제 거래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 요즘 시세를 두고 일부에서는 ‘속빈 강정’에 비유하기도 한다. 값이 오를것에 대비한 중상들이 일부품목의 물량을 쥐고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로 현호색가격 급상승세

현호색 예년의 경우 많게는 10만근 까지 생산되던 현호색이 금년들어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4만3천근(건근)에 불과한 생산실적을 나타냈다. 아울러 시세도 급상승세. 지난 5월 균당(6백 g 기준) 6천원에 도매거래되던 현호색이 6월들어 균당 7천원 선에 도매로 거래되고 있다.

경북 하동이 주산지인 현호색 재배면적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원인은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산지인의 분석이다. 지난 5월, 6월 이미 수확이 끝난 현호색은 현재 거의 소진된 상태로 산지 보유량은 약 1만7천원 정도라고.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 국산 생강값이 kg당 6천5백~7천4백원 선으로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생강으로 출하되고 남은 자투리가 건조돼 건강으로 유통되고 있기는 하지만 물동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현재 산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 도매시세는 한근당(6백 g 기준) 5천~5천5백원(상품기준) 선으로 생강값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시세동향

활기 1년근 소황기 가격이 제철을 만난듯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말 근당(6백 8기준) 6천원선에 거래되던 소황기가 근당 5백원 이상 오른 6천5백~7천원 선까지 산지에서 최근 도매 거래되고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보약재로의 수요가 다소 늘어난데다, 물밀에서 불법거래되던 물량이 단속강화로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때문이라는 분석. 반면 대황기는 3년근은 근당 1만7천원 선. 5년근 이상은 3만원 선으로 보합세다.

작약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 94년 작약값이 폭락하면서부터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산은 근당(6백 g 기준) 2천8백원 선에, 의성산은 근당 3천5백 ~ 3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아직은 많아 국내 소요량은 충분하지만 재고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작약값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두총 시세가 바닥세로 치닫고 있다. 현재 거래 되는 두총 도매시세는 근당(6백 g 기준) 상품이 6천5백원, 중품이 5천5백원, 하품이 4천원 선. 5월 시세(근당 8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1천5백원, 4월 시세(근당 9천원, 상품기준)에 비하면 2천5백원이나 큰 폭으로 내림세다.

근당 4천~4백2백원(상품기준)에 불과한 수입산의 영향으로 국산값이 떨어진데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에서는 주파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물동량도 그리 많지 않다.

작약 꾸준한 오름세 그러나 물동량은 "잠자"

해 지난 5월 완공한
불화고령지 약초시험장
은 부지 2만5천여평
에 건물 6동(본관·연구
동, 고사, 유리온실, 관리
실, 정주장) 9채·예평
규모로 설립을 등 기자
재 19종 22대를 갖추고
있다.

시험장을 또 관리
실, 육종재배연구실,
가공이용연구실로 나
뉘어 연구관 1명, 연
구사 8명, 기능적 2
명 등 총 11명의 직원이
고령지 약초의 고질
화 연구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경북지역
달구생산

경북 봉화군 충장면
에 고령지역 조시험장
(장장 황계선이 문을
열다.)

람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불화군은 약초재
배에 적합한 고지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동
시에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을 오가는 한약 유
통의 절로 이기도 하다.

이같은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살려 ▲고령지 적용 고품질 다수약초 신품종 개발 ▲고령지 약초 저비용 안전재 배기술 연구 ▲고령지 약초 품질향상 및 저 가공이용기술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연

◇ 불화고냉지 약초시험장(원내는 황계선장장)

백출, 중국산과 생산성 비교분석 삼주 재배기술체계 확립계획

11명 직원, 고냉지약초 고품질화에 박차

역지의난 95년부터 고수집지 및 특성을 조사하는 학편 봉화군의 약용작물 생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수집된 50여종의 유전자원을 비롯 담귀, 천궁, 살죽 등 4백여 종의 약초종자를 파종 1만 8천여평 규모의 협포장을 조성중이 다.
육종재배연구실의 최장수 실장은 국내 산부수에 비해 중국 산의 경우는 수량성이 우수하긴 하나 재배과정에서 별종해발성이 다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명 큰산부로 불리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비교 재배시험함으로서 이같은 병해발생의 원인과 생산성을 고분석해 볼의욕을 계획 보였 다.

20 가
이제
가 시작됐다. 영양수량이 40%에
비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년간 장마는 예년보다 더 길 것이라는
결론이다. 장마철에는 토양의 유
실·작물체의 도복·각종 병해의 발생·작물의 무
등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이 저해되거나 특
장마직후에는 배수로도 이 병주제거·방제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예가 허다하다.
몇 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장마철 약초관리 요령
로 알아본다.

줄이는 방법이다.
1) 2년근 재배에는 비
한다. 장마직후에는 이별
주를 뽑아 소각하는 것인데
전체 포장에 병해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다.

장마철 약초 관리요령

나		나		나	
나		나		나	
지	황	지	황	시	호
하	장마철	하	장마철	장마철	시
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바람직하다.	는 재배를 해 줍니	다면 농도로 예상이 있으면 요소를 배수로 정비를 해 줍니	을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증상은 낮에는 시들고 비에는 생기를 염다가 1주일쯤 경과하면 고사한다.	장을 피하고 뿐은 이는 기를 하며 비닐피복을 겸한 장마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다.
배수가 비교적 좋은 포	장마직후 잎 전체가 시커멓게 말라죽는 예가 많다.	피해가 큰 대표적 작물로	로 소독해 준다. 과슬에 의해 뼈리의 얄문홀수기의 능이 저하되므로 식물체 색깔이 연하게 변하는 증상이 있다. 잎에서 원형내지 부전형 생하는 병은 단지병, 간접병이며 탄저병은 잎과 꽃, 줄기에 발생한다. 잎과 꽃은 혼성화하고 줄기와 꽃은 번색되거나 말라죽는다.	방제방법은 밤나물포기를 뿐어서 불에 대비하고 전포장에 다이센엔·454백액을 분히 살포해 준다.	장마직후부터 뿐리써 풀을 주면 정지되는데 풀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갈색점무늬병은 잎과 줄기에서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원형 또는 불규칙형 모양으로 진전한다. 심각

장마후 썩은뿌리 뽑아 소각

장에도 가급적 평생
피하고 놓은 이는
피해를 겪하니